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2025.5.8(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의원 김선민, 김예지, 문정복, 서미화,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좌장 강현석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대표)

발표
수리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상수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시범사업 단장)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정애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시범사업 단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목 차

축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형숙 07

국회의원 김선민 09

국회의원 김예지 11

국회의원 문정복 13

국회의원 서미화 15

발표

경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17
수리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대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29
이상수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시범사업 단장

부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39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전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49
강정애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시범사업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59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73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축 사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입니다.

오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신 김선민, 김예지, 문정복, 서미화 의원님, 그리고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본래 이 사업의 명칭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었지만,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는 현 정부에 의해 사업명에서 탈시설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중한 예산은 삭감되고 본 사업화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헌신과 노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였고, 마침내 '26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특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랜 수용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권 기준,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포용'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무를 국내 정책으로 구체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추진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서비스・일자리・건강관리

등의 영역에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30개 지자체에서 292명의 탈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협약 제19조가 명확히 요구하는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을 선택할 자유’, ‘시설이나 특정 환경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회’, ‘지역사회 내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비협조, 주거 공급 부족,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미비는 자립의 최소 조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과 시설입소예방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한, 마중물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개별 사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장애인을 이 사회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 국회, 학계, 지원기관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은 단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핵심 의제입니다. 돌봄과 보호 중심의 오래된 틀을 넘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2021년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와 지난 2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거, 돌봄, 의료, 소득, 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공백과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오늘 논의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는 장애인 자립 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단지 시설을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실험하고 고민하는 실천적 모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국 시범사업의 현장 사례와 경험이 공유되고, 향후 본사

업 시행 시 담겨야 할 정책과 법률 과제가 도출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 김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설계부터 전달까지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경기도, 대구, 부산,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뤄진 시범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본사업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 김예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위해 힘써 주신 장애인권 단체들과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작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였고, 시범사업의 실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삶을 꾸리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2025년 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이 통과하며, 이제 시범사업의 경험이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법률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권리 실현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왔던 과오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지역의 경험들이 모여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한 축을

더욱 탄탄히 세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흥 갑)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애 당사자, 조력자, 관련 단체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으로서 탈시설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계신 탈시설 당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하여 탈시설의 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에 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탈시설 정책”이 포함되고, 2018년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탈시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2021년 9월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인권가치의 실현을 위한 탈시설 정책 흐름을 외면하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탄압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당사자 박초현 님,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신 강현석 님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적 미비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날 박초현 님의 증언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자립을 도와주고 나가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시설에서 그렇게 오래 안 살았을 거예요.“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관한 논쟁이 무색하게, 정작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몰라서 못 나오는 일’이 여전히 현장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는 탈시설 권리를 천명하고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능력을 이유로 자립생활의 대상을 나누거나, 의사표현 여부로 자립생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 역시 장애인이 ‘삶의 터전’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범’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선민, 김예지, 문정복 의원님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 서미화

[발표]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시흥을 중심으로 -

수리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리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배경

-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주택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 도입

- 2016년 6월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경기도 탈시설 로드맵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하였고, 이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 및 정책과제들을 도출

- 2017년 4월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 실무회의 의제가 채택되면서 장애인 자립지원 T/F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고, 총 4회에 걸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자립생활 중장기계획(안) 마련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배경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자립생활 전환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시군과의 매칭 사업 및 경기도 시범사업 등을 수행

-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진행

  - 자립 이후 자립의 범위가 공간에서 권리로 더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자립을 통해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함께 자신감 회복으로 나타남.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현황

- 체험홈

  - 2010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3년 6월 기준, 23개 시군, 운영기관 37개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3개소, 거주 시설 1개소, 기관 및 단체 3개소), 73채 운영(남성홈 36채, 여성홈 36채, 모자홈 1채)

  - 120명이 이용 중이며,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장애인 15명, 뇌전증 1명, 지적장애인 102명, 자폐성 장애인 1명, 정신장애인 2명임

  - 입주정원 : 1채당 2~3명 (1명당 1실 제공)

  - 입주기간 : 2년(1회 2년 연장 가능). 1인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나, 운영기관 사례회의 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연장 가능(최장 4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현황

○ 자립생활주택

-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사업 시행, 2023년 6월 기준 4개 시군 11채 운영(남성 자립생활주택 4개소, 여성 자립생활주택 7개소)

- 15명이 이용 중. 지체장애인 1명, 뇌병변장애인 1명, 지적장애인 11명, 정신장애인 2명임

- 입주대상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1순위 :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체험홈에서 퇴소한 자(해당 지역 장기거주 장애인 우선)
· 2순위 : 기타 경기도 자립생활주택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자

- 입주정원 : 1채당 2명(1명당 1실 제공)

- 입주기간 : 2년. 1인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나, 지역사회 자립을 위 한 주거 미확보 시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후 지자체 승인을 받아 1년 단위 연장 가능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현황

○ 자립주택

- 2024년 기준 68명(10개 시군, 성남8, 안산20, 부천4, 시흥4, 이천4, 구리4, 안성4, 의왕8, 포천8, 양평4)

- 2025년 80명(시흥4 추가, 평택4, 의왕4 신설)

- 총사업비 3,655백만원
  국비.지방비 1,542백만원(국비50%, 도비 15%, 시군35%)
  도.시군 추가예산 2,113백만원(도비30%, 시군 70%)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현황

2024년 도_시.군 추가 예산

(단위: 명/천원)

연번	시·군명	사업량	지방비계	도비	시·군비	비고
경기도(계)		68	726,412	217,926	508,486	
1	성남시	8	82,344	24,703	57,641	'23년
2	안산시	20	256,733	77,020	179,713	'23년
3	의왕시	8	92,519	27,756	64,763	'23년
4	부천시	4	36,852	11,056	25,796	'24년
5	시흥시	4	36,852	11,056	25,796	'24년
6	이천시	4	36,852	11,056	25,796	'24년
7	구리시	4	36,852	11,056	25,796	'24년
8	안성시	4	36,852	11,056	25,796	'24년
9	포천시	8	73,704	22,111	51,593	'24년
10	양평군	4	36,852	11,056	25,796	'24년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시흥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 2024년 4월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사업비 115,980천원/ 사업량 4인(1인 1주택)
  - LH를 통한 주택확보(복층형 오피스텔)

- 사업 진행 경과

  - 2024년 12 기준 29명의 자립주택 신청 문의
  -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거주시설 등을 통해 홍보
  - 13명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진행
  - 4명 입주(지적장애 여성 4명 입주/ 집중지원형 1명, 비공급형 1명)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진행

  (지자체 공무원, 누림센터, 시흥장복, 시흥부모연대, 지역의료기관, 장애인직업시설 등 총 8명으로 구성)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자립주택 확보 및 환경 조성
  - 주택용도 : 제1,2종 근리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용면적 : 14평(47.53㎡)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2024년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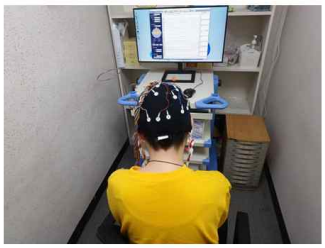
사업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홍보 및 입주자 모집	■	■	■	■	■	■	■	■
사업설명회		■						
입주자 모니터링 상담						■	■	■
사례지원회의						■	■	
개인별 지원					■	■	■	■
자립지원위원회					■	■		■
입주환영식							■	
자립여행								■
멘토만남지원							■	

- 입주자 개인별 지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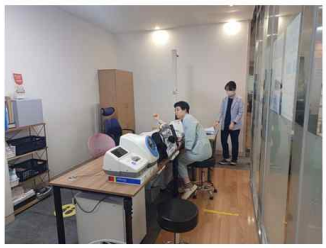
사업명	수행 방법
취미활동 프로그램	개인별 욕구에 맞춘 취미·여가 프로그램 진행
요리 프로그램	입주자가 메뉴를 정하고 스스로 재료 및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 후 장보기와 요리 진행
사례관리	입주자 지원관련 이슈에 대한 심화 논의 진행
멘토 만남	자립생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과 지식 나눔
입주자 자조모임	입주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조모임 진행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건강관리)



뇌파 검사



종합 건강검진



장애인 주치의 방문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사례회의)



1차 사례회의



집중지원형 입주인
통합사례회의



2차 사례회의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자립여행)






2024. 12. 4 ~ 12. 6 제주도 2박3일 자립여행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개인별 지원)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주거유지지원)



침대, 소파, 식탁 등 가구 구입



비공급형 입주인 물품정리



주민센터에서 주소이전 신고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입주환영식)



지역사회 지지체계와 함께 단체 사진



체험홈에서 입주선물 전달



지역사회 상가에 입주 떡 돌리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 입주자 개인별 지원 활동 모습(입주환영식)



지역사회 지지체계와 함께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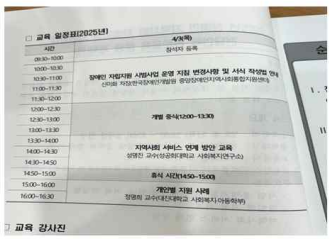
체험홈에서 입주선물 전달



지역사회 상가에 입주 떡 돌리

시흥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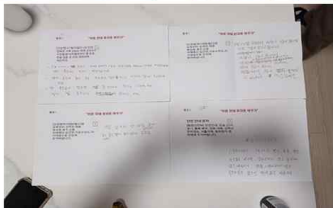
- 전담인력 및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과제

- 경기도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 증대함에도 구체적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주택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
-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관련 정보 및 자립지원 상담제공 체계구축 필요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과제

- 집중지원형 입주인의 경우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추가 확보
- 시.군의 자립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한 도비 매칭율 인상
- 경기도 및 시.군별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한 인적.물적자원 연계 방안 마련

[발표]

대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이상수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단 단장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대구)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단
이상수

목차

부분 01 시범사업 참여 배경
부분 02 시범사업 추진현황
부분 03 자립 전후 변화 된 삶
부분 04 향후 과제!

시설안에 갇힌 삶, 권리 밖의 사람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배경(주요 연혁)

2005 ~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2005~2006)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및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2007~)
- 수용시설 입소 금지 및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촉구 활동(2009~)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및 자립생활 환경 구축 활동(2012~)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비리 척결 활동(2016~2019)

2015
- 제 1차 탈시설 추진계획(2015~2018)
→ 목표 : 100명 탈시설, 주택 35호 확보

2017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2016~2019)
→ 전국 최초 "탈시설자립지원팀" 신설
→ 국가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2019
- 무연고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실시
→ 남 : 4명, 여 : 5명
→ 종단연구 : 7차년(2025년)
- 국가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2020
- 제 2차 탈시설 추진계획(2020~2024)
→ 목표 : 200명 탈시설, 주택 100호 확보
- 2021. 달성군, OOO마을 거주인 사망사건
- 2021. 대구 동구(경산), OO요양원 폭행, 운영 비리 사건
- 2022. 달성군, OOO마을 추가 확대 사건

2022
-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선정
→ 탈시설 로드맵 발표(2021) ※시립희망원 사건 등 계기
→ 20명 이상 탈시설 지원, 활동지원 최대 24시간 지원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 발표.

1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개요 및 현황)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2024년(3년) + 2025년(연장) + 2026년 (연장 *자립지원법 시행 전까지)
-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대기 장애인 + 2024년 부터 재가장애인(시설 입소 가능성 ↑)
- **지원목표** : 총 44명
  - (1차) 동 구 20명 중 18명 입주, 입주대기 2명(건강, 의사번복)
  - (2차) 달서구 24명 중 6명 입주, 자립유지형 3명
  - (3차) 2025년 5월 중 수행기관 추가모집 예정

입주자 현황

- **지원유형** : 자립지원형 11명, 집중지원형 7명
  ※ 지원기준 - 시범사업 자립3 : 집중1 / 대구시 자립1 : 집중1
- **장애유형** : 발달장애인 16명, 신체장애인 2명 *18명 심한장애
- **성별 및 연령** : 18명 전원 남성, 평균연령 52세
  - 퇴소 및 입주시기 : 22년 6명, 23년 8명, 24년 3명, 25년 2명
  - 입주 전 거주현황 : 거주시설 16명(평균 28년 거주), 재가 2명
  - 소득 및 수급여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17명, 일반 1명

수행기관 현황

- **수행운영 모형** : 민관협력형(통합) *대상자 발굴 및 주거유지서비스
- **전담인력 정원** : 정원 10명(현원 10명, 남성 4명, 여성 6명)
  ※ 대구시 전담인력 5명 추가 지원
- **전담인력 자격** : 사회복지사 9명, 장애인재활상담사 1명
- **1차 수행기관**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주택 10채(LH, 지자체공사)
- **2차 수행기관** :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주택 4채(LH, 지자체공사)

2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연차별 주요사업 흐름)

2022년 7월~

1. 전담인력 채용(6월 사업선정 이후)
2. 주택확보 및 환경조성
   (주택 7채,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각 1채)
3. 사업홍보
4. 자립조사 및 개별전환계획
5. 개별자립지원계획 및 지원
6. 사업결과보고

2023년

1. 전담인력 역량강화
2. 지역사회자원연계
3. 개별전환지원(개별 및 그룹상담,
   주택체험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사전신청 등)
4. 자립조사
5. 개별자립지원
   (건강검진, 보조기기구매지원)
6. 사업결과보고

2024년~ 2025년

1. 지역사회자원연계
2. 사업홍보(SNS 활성화)
3. 개별자립지원(일상, 의사소통, 낮활동
   연계, 자조모임 다양화 + 생활안전,
   도전행동 지원, 삶의 질 변화 측정 노력,
   삶의 기록(아카이빙))
4. 사업결과보고

3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지원 서비스 1

1. 주택확보 및 환경 조성



2. 전담인력 역량강화



3. 정보제공 및 홍보



4. 자립조사



5.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선정)



6. 개별전환
   (이주지원, 서비스 사전신청)



7. 안전관리



8. 지역사회자원연계



4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지원 서비스 2

9. 건강검진	10. 보조기기지원	11. 커뮤니티공간 운영	12. 사업결과보고
			
★개별지원+활동지원추가	★개별지원+활동지원추가	★개별지원+활동지원추가	★개별지원+활동지원추가
			

5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변화 된 삶(자립 전)



6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변화 된 삶(자립 후)



7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변화된 삶(지원자 인터뷰)

○ 편안함
- 입주자가 평소 불안해 하거나 무서워 하는 것이 있나요?
- 최근 심리적인 상태(편안, 안절 부절, 불안 등) 어떠한 것 같나요?

▶ 편안함
- 초반에는 단순 이갈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이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됨. 입주 초반에 이갈이가 굉장히 심했으나, 최근에는 이갈이가 아예 사라질, 하지만 여전히 담당 코디네이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음. 그래도 예전에는 담당 코디네이터가 다른 입주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보였고 본인이 특차지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님.

- 야간에 숙면을 하지 못해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평정히 예민해져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잠을 못 자도 예민함이 없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임. 요즘은 예민한 모습을 보기 어렵고 많이 부드러워짐.

○ 서비스의 수준 및 적절성
- 입주자는 현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나요?

대체적인 지원에 큰 어려움 없이 서비스받는 것 같음. 명확한 의사소통은 어려지만 지원자는 언어들이 입주자의 나이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제시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기를 다루듯 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입주자의 생각과 표정, 반응을 통해 근거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 사생활/주택 환경
- 입주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쾌적한 것 같나요?
* 입주자의 사생활은 적절하게 보장 및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지

특서 혹은 낮잠, 휴침 등을 할 때는 본인의 방에서 지내고 있으시며, 항상 청소도 하고 매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주후 부드등을 설치하여 취침 환경을 좀 더 숙려할 예정이고, 낮잠을 주무실 때는 귀마 주무실 수 있게 콘도실 후 부엌에서 기다려줌. 휴침 때는 혹사 모를 낙상사고, 초변 유도의 업무로 취침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시로 확인하기도 함.

○ 전반적인 삶의 질
- 입주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 된 것 같나요?
* 태도, 행동, 표현, 건강, 관계 등 전반의 변화

확실히 직원 입주했을 당시에는 사람이 되게 불안해 보이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뭔이 유스러웠는 모습이 거의 매일 보였음. 하지만 현재의 제시 님을 보았을 때는 언제 그랬나는 듯 전혀 예전 모습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표정이 되게 밝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음. 인사 같은 부분도 전혀 눈을 안 마주칠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주저없이나 손짓 인사 매도 밝이 많아가 있고 TV 시청 때도 어지가 곤해 제시 님 집이라고 느낄 정도로 편하게 보는 모습들을 보시 시원자 또한 기분이 좋았다고 함. 명원도 주택 인근으로 바운 후 생산을 통해 작물 모정 등을 하나 취미 등도 가져워라 등한 모습도 보이셨음.

○ 행복
- 입주자의 최근 기분은 어떤 것 같나요?
* 웃음이 많아지거나, 주눔감을 표현, 또는 표현력의 다양해지거나 입주자의 표정을 이해하게 된 경우가 있는지

- 일단 외출을 하시면 너무 좋아하심.
- 외출하여 다양한 곳을 다니며 산책 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보임.
- 그런 때마다 함박 미소를 보이며 소리내어 웃으심.
- 본인이 기분이 안좋을 때는 미간이 찌그러지며 화난 표정을 지음.

○ 편안함
- 입주자가 평소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나요?
- 최근 심리적인 상태(편안, 안절 부절, 불안 등) 어떠한 것 같나요?

- 초반에는 주택에 심을 땅 구석이니 분위에 로그레잉하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적이 한번도 없음.
-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어있는 모습이 보임.

○ 안전
- 화재나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 및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 입주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잘 피하시는 것 같음.
- 가스 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으저은 없이나 에초에 가까이 가지를 않음.
- 크게 안전에 위협될 만한 것 없는 것 같음.

○ 나에 대한 존중/대우
- 입주자는 지원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 입주자 욕구에 맞춰서 잘 존중받고 있는 것 같음.

○ 서비스의 수준 및 적절성
- 입주자는 현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나요?

- 입주자 욕구에 맞춰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음.

○ 사생활/주택 환경
- 입주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쾌적한 것 같나요?
* 입주자의 사생활은 적절하게 보장 및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지

- 모세닌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잘 생활 하고 계심.
- 방에 큰 창문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음. 창문을 구정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자주 창문을 내다 보심.

○ 전반적인 삶의 질
- 입주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것 같나요?
* 태도, 행동, 표현, 건강, 관계 등 전반의 변화

- 초반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음. 표정이나 하사표현이 많이 다양해짐.
-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다 좋아하시는 것 같음.

8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변화된 삶(지원자 인터뷰)



○ 나에 대한 존중/대우 - 입주자는 지원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 일상생활에서 지원사와 관계에서는 존중받고 생활하고 계신다. 입주자가 하자는 대로 하므로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 서비스의 수준 및 적절성 - 입주자는 현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나요?	- 나는 입주자를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다.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 외에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생활/주택 환경 - 입주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쾌적한 것 같나요? * 입주자의 사생활은 적절하게 보장 및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지	- 혼자 있고 싶을 때 방에 들어가신다. 대부분 거실 소파에 앉아계시고 활은 시간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 주거환경은 쾌적한 것 같다.
○ 전반적인 삶의 질 - 입주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것 같나요? * 태도, 행동, 표현, 건강, 관계 등 전반의 변화	-태도는 비슷하지만, 표현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입주자는 뭐든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성격이다. 입주 초에는 외출 욕구가 있을 때 방출할 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나가는 방법을 알아서 혼자 나간다.

○ 나에 대한 존중/대우 - 입주자는 지원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 오전과 야간에 근무 교대 시 다른 활동지원사 분들도 입주자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편인 것 같음. 입주자도 호의적이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음. 다른 활동지원사를 볼 때도 입주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잘 지원해 주는 것 같음.
○ 서비스의 수준 및 적절성 - 입주자는 현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나요?	-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른 활동지원사들을 봤을 때도 다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음.
○ 사생활/주택 환경 - 입주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쾌적한 것 같나요? * 입주자의 사생활은 적절하게 보장 및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지	▶ 사생활/주택 환경 - 평소 본인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함. 방문을 닫으면 입주자가 삶에빠서 열어 놓고 있음. 그렇다 보니, 사생활을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주택 환경은 쾌적한 편임. 초반에 입주자 방을 보면 어딘가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은 벽에 사진도 붙이고 창문에도 스티커를 붙이며 꾸며서 그런지 진짜 사람 사는 방 같은 느낌을 받음.
○ 전반적인 삶의 질 - 입주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 된 것 같나요? * 태도, 행동, 표현, 건강, 관계 등 전반의 변화	-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많음. 처음을 잘아도 초반에는 말을 하는 것이 힘부였는데, 요즘은 가리기 모양의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색칠해도 선을 따라 색칠했는데 공백을 채워서 색칠하는 모습이 보임. 활동지원사를 봐도 얼굴 반갑게 맞아 줌. 반갑다는 표현도 초반에는 욱설로 했다면 요즘은 부드러운 소리로 "에에~" 하며 달려옴.

9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피워내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향후 과제

○ 국가적(중앙) 측면

- (자립) 주택 확보 방안 마련
-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전담인력 1명당 지원 이용인수 하향 조정 3~5명 → 2명
- 자립정착금 가이드라인 제시 및 표준화
-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공적 의사결정지원 제도 마련
- 중앙 차원의 시범사업(이후, 자립지원법 시행) 탈시설 관련 언론, 정책 홍보
- 탈시설, 자립지원 거주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소규모화 방안 마련
- 거주시설 대상자 시범사업 참여 방안 지속적 고민

○ 지자체 및 지원기관 측면

-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연계 방안 다각적이고 협력적 노력과 고민
- 자립생활 당사자의 자립 전 후 삶의 변화 측정, 연구, 홍보
-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변환 지원(시설내 자립지원계획,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등)
- 중앙 및 지역,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지속적 의견 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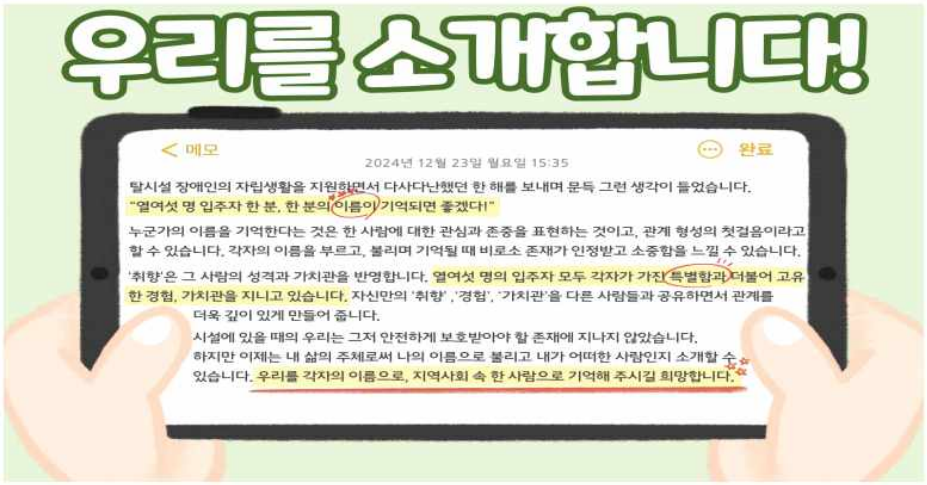


- 지자체-국가 책임 강화
-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 존중
- 단기성 서비스·정책 한계를 넘어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보호' 중심 → '자기 삶' 중심
-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 탈시설-자립생활의 실질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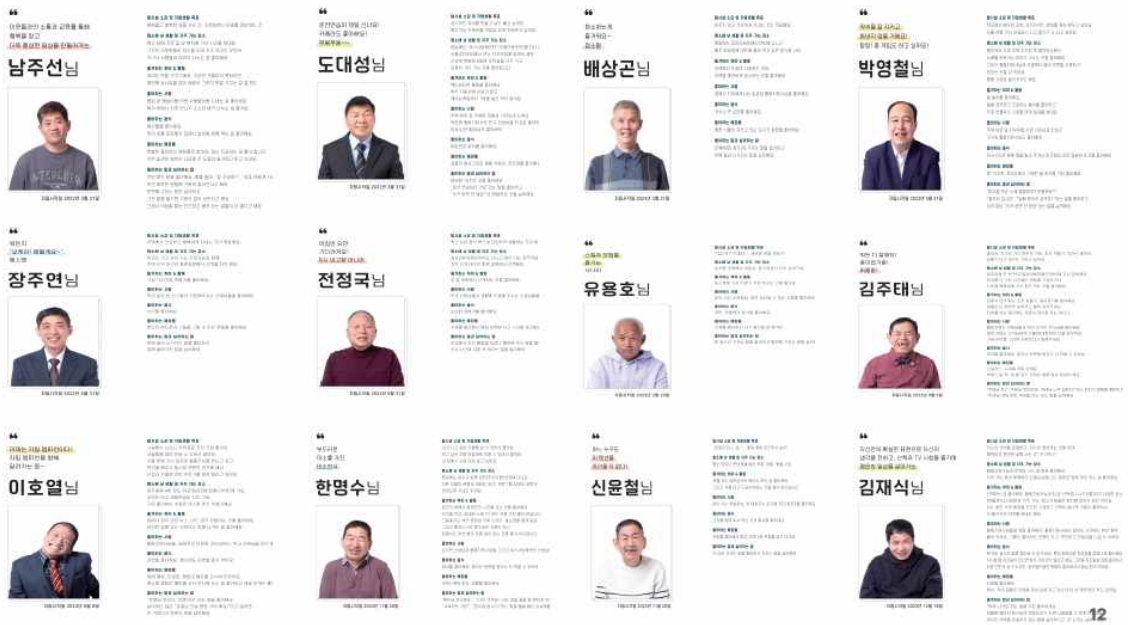
10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피워내다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발표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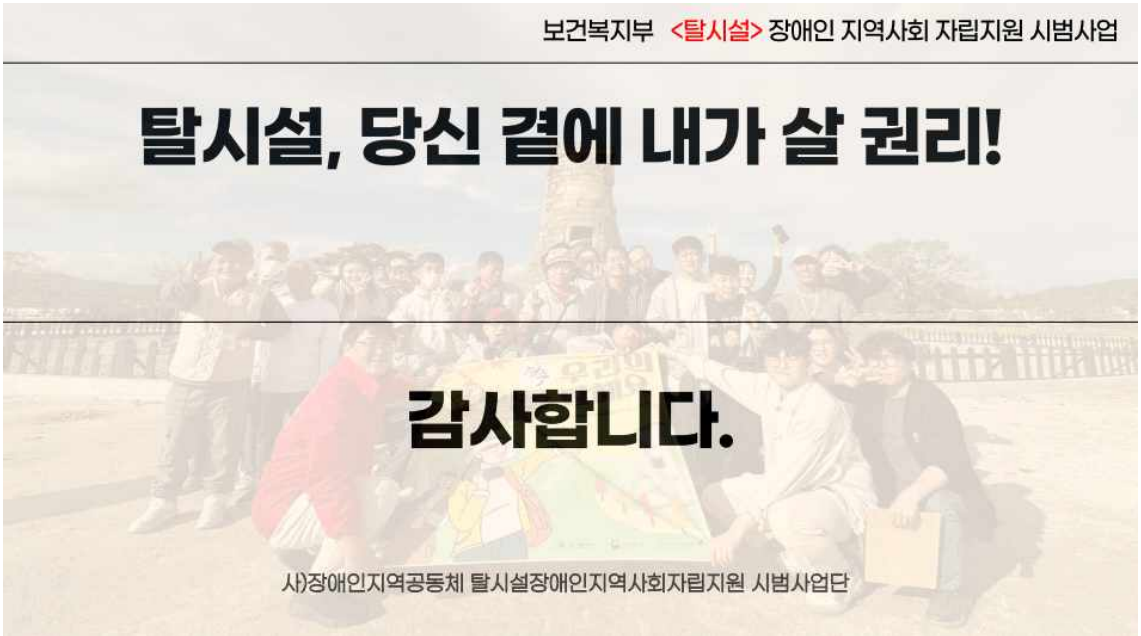


11



12


한모세님
안 희님
구해수님
황재관님
이준휘님
2025년 2월 12일 사설 퇴소
양판길님
2025년 3월 10일 자립
故 이석봉님
2023년 2월 20일 탈시설 ~
2024년 12월 8일 영면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당신 곁에 내가 살 권리!
감사합니다.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단

[발표]

부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부산지역 현황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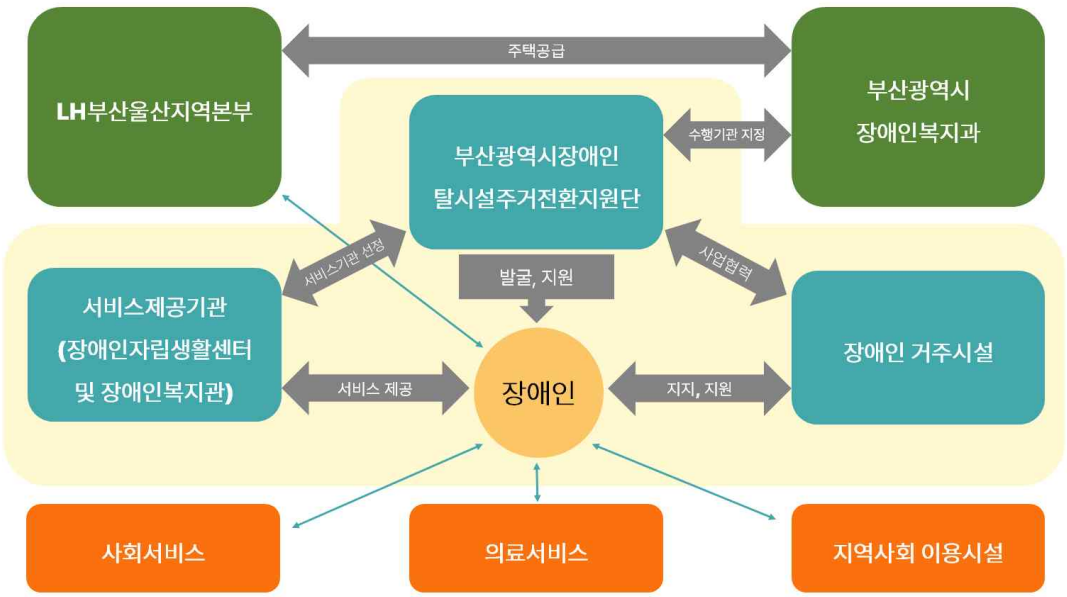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현황_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2020~2024) 수립
장애인 탈시설 사업 대시민 홍보 선포식(2019. 12. 04.)
부산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 시행(2020. 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5개년 계획(2021~2025) 수립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 기본 5개년 계획(2022~2026) 수립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2차 계획(2025~2029) 수립 중

시범사업 계획_
사업운영 체계

- **추진 유형: 민관협력형 - 분리운영**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시범사업 운영 총괄, 예산 확보, 자립조사 기획
  - LH부산울산지역본부 : 주택공급
- **사업수행기관 :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 형성 및 유지(민관협의회 운영)
  - 자립조사 진행
  - 거주시설 내 이용장애인 대상 거주전환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 부산지역 11개 제공기관 선정**
  - 가람, 동래구, 사상구, 사하두바퀴, 함세상, 금정, 기장, 삶, 연제, 영도, 영도장복
  - 11개 기관, 기관별 이용자 4명 및 주택 4개소 운영
  - 기관별 자립지원전문인력 1명 배치
  -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계획_ **탈시설 자립지원 민관협의회**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실행
- 탈시설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소통과 연계 체계 마련
  - 민관의 각 분야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
  - 지역사회의 이해 확대, 갈등 예방, 탈시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자립지원소위원회 구성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 자립조사 계획 승인, 시범사업 홍보 활동

시범사업 성과_ **대상자 선정 현황**

○ 총 39명 선정(2022~2024)

대상자 특성	특성 분류		
지원 유무	지원 유지 38명	지원 종료 1명	
성별	남 21명	여자 18명	
연령대	만 65세 이상 1명	만 60세 ~ 64세 2명	만 50대 11명
	만 40대 5명	만 30대 11명	만 20대 9명
선정 사유	장애인거주시설 경험 31명 (10개 거주시설 참여)	학대피해쉼터 경험 4명	재가 발달장애인 4명

시범사업 성과_ **주택 확보 현황**

○ **42**개소(6개 기초자치구 소규모 분산형 주택 확보)

주택 지역	주택명	서비스제공기관	개소수
동래구	라젠300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연제구	주안빌리지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사상구	이지빌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유진이즈빌		2
사하구	이한빌라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수영구	수피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동래구	갤럭시빌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동래구	보문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동래구	은가람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연제구	트윈팰리스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달하우스		1
영도구	동삼그린힐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영도구	절영아파트 등(주택 비공급형)	영도구장애인복지관	4

시범사업 성과_
자립 조사(2022~2024)

○ 29개소(장애인거주시설25, 단기3, 쉼터1) 및 학대피해장애인
○ 1인 독립 희망 재가 발달장애인
○ 기초 및 심층조사 진행 1,146건 진행
○ 2024년 거주시설 자립희망자에 대한 대기자 관리 진행 중

함세상센터 지원 자립대상자 현황 및 주요 지원 사례

자립대상자	사진	자립대상자	사진
김한철(남, 만50세)		조인제(남, 만73세)	
시각•지적, 심한		지체, 심한	
아하브마을, (1981.5.14~2022.12.06)		동연요양원, (2003.11.18~2022.12.27)	
지원 특성: 해당 거주시설 최초 탈시설-자립 근로활동 지원, 자립 이후 시각장애 추가 등록		지원 특성: 만 65세 이상 탈시설 지원 여행 활동 선호로 욕구에 따른 다양한 장소 방문	
배유화(여, 만20세)		장인숙(여, 만55세)	
뇌병변•지적, 심한		지적, 심한	
동연요양원, (2015.04.08~2023.03.07)		평화의집, (2023.08.12~2023.08.07)	
지원 특성: 만 18세 탈시설 지원 특수교육과정 수료 및 전공과 진학 등의 학교생활 지원		지원 특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자립이후 의사소통 향상과 행동적 변화 관찰	

개입 계획

문제 및 욕구	개입목표		실행방법	평가방법
	단기	장기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지원 희망	입학 및 등하교 지원	지속적인 학교생활 유지	재학 중인 울산태연학교, 부산시 교육청, 입학예정인 혜남학교와 소통하여 입학 수속절차 진행	입학 및 졸업 여부
교우관계 향상	자택으로 친구 초대 및친구와 만남 주선	교우관계 향상을 통한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	방학 중 학급친구 자택 초대 및 외부활동 진행	상담을 통한 만족도 확인 및 교우관계 변화 관찰
지역사회 자립적응	지역사회 다양한 시설 이용	지역사회적응을 통한자립역량 강화	외식, 영화관람, 미용실 등 지역사회 근린시설 이용	개인 자립지원일지를 바탕으로 지원된성과 확인
지속적인 건강관리	건강확인 및정기진료 가능한부산지역재활의학과연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건강한 자립생활영성	정기적인 재활의학과 진료, 연 1회 종합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실시 및 정기진료 가능한재활의학과병원연계 여부
자립 이후에도 물리치료를꾸준히 받고자 함	물리치료 제공기관연계	잔존능력 개발과 향상을 통한 일상생활 적응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신청 및 제공기관과 연계	물리치료 전후일상생활영역 비교관찰 통한 성과 확인
모친과의 관계강화	1박2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한모친과의 긍정적관계 형성	모친과의교류를 통한 정서적 안정지원	모친과 함께1박2일 여행진행	모친과의 관계 변화 확인 및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한 평가
사회서비스 신청 및 연계를 통한자립생활 지원	필요 사회복지 서비스 등록 ·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삶의 질 향상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연연금, 주거급여 등 필요 서비스 신청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목록표 작성
전동휠체어 구매	보조기기 구매 및체형에 맞도록수정	전동휠체어이용으로 이동 접근성 확장	전동휠체어 구매 및 수정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전동휠체어 사용 전후 이동의 변화 관찰 및 대상자 만족도조사

개입 진행

개입목표	개입내용	주체/연계기관(자원동원)
특수학교 입학 및 등하교 지원	• 울산 중학교로부터 대상자 입학 수속에 필요한 서류일체 전달받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 후 혜남학교에 배치공문 발송 요청 • 활동지원사 동행으로 두리발 이용 및 센터차량 지원을 통한 등하교 지원	울산 태연중학교 부산시 교육청 부산 혜남학교
자택으로 친구초대 및 친구와의 만남 주선	• 학급친구 김○만을 초대하고자 친구가 입소해있는 거주시설을 방문 후, 자택으로 초청 • 자택 소개 및 식사, 카페방문, 영화관람 등의 외부활동 진행	성프란치스꼬의 집
지역사회 다양한시설 이용	• 여수, 경주, 양산, 울산 등 여행지원 • 1박2일 캠핑 참여 • 백화점, 영화관, 카페, 서점, 미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지원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강확인 및 정기진료 가능한 부산지역 재활의학과 연계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종합검진 실시 •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있는 양산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계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차량 및 이동지원	연제일신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부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물리치료 제공기관 연계	•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 마중물카드 신청을 통한 언어치료 제공기관 연계 •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물리치료,작업치료 등록	인우심리상담센터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모친과 함께하는 1박2일 여행 진행	• 모친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1박2일 여수여행 지원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필요 사회복지 서비스 등록 · 신청	장애인연금, 자립정착지원금, 주거급여,양곡신청 및 복지감면 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신청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수영구청
보조기기 구매 및 체형에 맞도록 수정	• 전동휠체어 구매 및 체형에 맞도록 이너 수정지원 • TLSO 등허리엉치뼈보조기, 이동식리프트,휴대용경사로 교부신청 · 수령	에이블테크 광안1동주민센터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산 성모병원

평가

개입목표	평가방법	평가내용
지속적인 학교생활 유지 확인	• 구두면담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확인 • 담당교사의 학기별 개별화 교육지원 결과평과서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생활 평가	학교생활에 만족함을 자주 언급하며 담임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급 내 부반장을 맡아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다고 함.
친구와의 만남 및 외부활동 지원을 통한교우관계 향상	학급친구 초대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자 면담을 통한 교우관계의 변화 확인	자택방문과 외부활동을 함께함으로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관계향상이 관찰됨.
지역사회 적응을 통한자립역량 강화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성과 확인	• 23년 15회의 정서 · 문화생활 지원제공과 14회의 지역기관연계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총 47회의 개별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24년 연말 평가예정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건강한 자립생활 형성	• 종합건강검진 회송서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후속조치 이행 • 정기적인 재활의학과 진료 및 주치의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 변화 관찰	검진결과 바탕으로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 및 B형간염 · 비타민D 주사 접종. 흉추측만으로 정밀CT촬영 등 건강상태 주기적 파악.
잔존능력 개발과 향상을 통한 일상생활 적응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연계 전후 대상자 일상생활 변화 관찰	치료 전과 비교하여 표현 가능한 언어적 표현이 늘어남과 손 상지의 이동범위 향상이 관찰
모친과의교류를 통한 정서적 안정지원	1박2일 여행 진행 후 모친과의 관계 변화 확인 및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한 평가	모녀간 이전보다 대화도 많아지고 방문도 찾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모친의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게되어 평가할 수 없게 됨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연계 목록표 작성을 통한 이용 서비스 확인 및 상담을 통한 서비스 이용 평가	양곡, 요금감면, 급여신청 등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가사생활 지원. 기타 사회서비스 신청으로 자립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전동휠체어이용으로 이동 접근성 확장	전동휠체어 사용 전후로 나타나는 생활반경 변화 확인	전동휠체어 사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접근성 확장부산근교, 기장, 울산, 경주, 김해 등으로 이동반경 증가

시범사업 추진 과제

1. 자립 욕구 조사 대상 시설 확대

-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에도 상당수가 존재함.
- 이러한 타 영역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 각별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자립 욕구 조사 대상 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자립지원이 필요한 타 영역의 거주시설이 포함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시범사업 추진 과제

2. 자립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체계 강화

-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돌봄서비스 신청 제한
-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개인별 서비스 보장 방안 마련, 예산 문제 해소 필요

[발표]

전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전주를 중심으로 -

강정애

(사)전북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자립전환사업단 단장

2025년 전주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상황

사)전북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목차

01 전주 시범사업 개요
- 전담인력 현황
- 사업 대상자 현황
- 주택 유형별 현황

02 2025년 추진 상황
- 홍보활동
- 연계프로그램
- 권익옹호
-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 네트워크 구축 및 협약
- 일상생활지원
- 자체프로그램

03 향후 과제
- 건의사항

전주 시범사업 현황

1. **전담인력 현황**
   8명 채용(단장 1명, 팀장 2명, 전담인력 5명)
2. **자립 대상자 현황**
   총 32명 자립 전환 완료
   시설 15명, 피해학대쉼터 7명, 재가장애인 10명
3. **건강검진 및 헬스케어**
   건강검진 32명 검진 완료
   척수장애인협회 전북지회 헬스케어 연계 (주1회 관절운동,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4. **네트워크 구축**
   굿네이버스자립지원전담기관 외 10곳
   자문위원회 구축

전주 시범사업 성과(2022~2024)

2022

전주 문화재 야행 홍보
시내버스승강장 광고
유관기관네트워크회의
(경찰서, 소방서 등)
거주시설 전수조사
(117명 중 희망자 13명)
자립전환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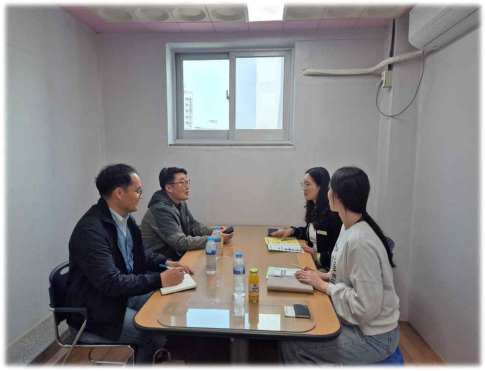
2023

거주시설 사업설명회
자립주택 확보 (28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드나들기하우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매칭
가정간호서비스 연계
65세 고령장애인(척수) 전담인력 야간당직
(22~익일 7시까지)
최중증(척수)장애인 5명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반찬 쿠폰 연계
자립전환 16명

2024

업무협약체결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원예,
건강체조)
주거환경개선(방염벽지 공사 등)
네트워크회의
마음투자사업 연계
자립전환 15명

2025년 추진 상황 : 홍보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복지관 및 시설에 방문하여 사업소개 및 대상자
설명 자립희망자 자립상담진행

2025년 추진 상황 : 연계프로그램



전주대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가프로그램

스포츠활동 (배드민턴,볼링,탁구 등)
애견카페 체험, 영화관람 등

2025년 추진 상황 : 권익옹호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인 연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매칭 및 금전관리

2025년 추진 상황 :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망 구축
(소방안전 , 소비자교육 등)

- 건강검진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소비자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 지역사회 자율 방범대와 연계하여 안전한 동네 유지를 위한 야간 순찰

2025년 추진 상황 : 네트워크 구축 및 협약





굿네이버스 외 10곳 업무 협약 진행

일자리 연계 및 자립희망자 발굴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진행

2025년 추진 상황 : 여행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여행 지원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여 1박 2일 여행지원
개인 또는 단체

2025년 추진 상황 : 자체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대학생 및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
진행 예정(6월)

2025년 추진 상황 : 자체프로그램



무장애마을만들기 (더 올가게)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량을 높이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편의시설 상점
확인 및 동네상점들에게 무장애마을만들기
설명(더올가게) 및 편의시설(경사로) 요청

2025년 추진 상황 : 자체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우리지역의 회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원예프로그램 진행
(화분만들기, 꽃 가꾸기, 자연만끽하기 등)



[발표]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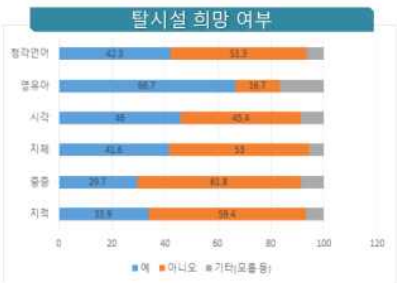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대규모 시설 보호의 한계

◆ **거주 시설 장애인 중 지역 자립 희망 수요**

- 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약 24,000명) 결과, 본인 응답이 가능한 6,035명 중 **2,021명(33.5%)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고 응답**

* 남성(35.8%), 시각장애(46%), 청소년(42.7%) 등



◆ **가족에 의한 원치 않는 시설 입소** ('17년 인권위 발표 47.5%)

- 개인 욕구 변화와 무관한 획일적 서비스, 지역사회와 단절 → **환경변화 대응의 어려움**

◆ **인권침해 문제** ('19, 장애인학대보고서)

-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 **학대피해자 가해자** 관계 : **시설종사자 23.1%**, 지인 16.4%, 부모 11.6% 순

1)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 비준 이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수동적 보호(protection) →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active support)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자립을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함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길 원하는 재가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장애인에게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년)**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자립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22~25) 통해 자립경로 및 지원모형 개발, 시범사업 평가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탈시설 자립 지원 로드맵 보완**
  * 시범사업 규모: ('22~25) 600명 → ('26~) 본사업 시행
- **사업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준비를 거쳐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본사업 추진** ('26~)

거주시설 전환 지원

- **와상장애 등 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 모델 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하여 시범사업 추진 검토 ('23)
- **대규모 거주시설 대상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추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추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설치 운영기준 등 마련, '23)

2)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22~'25)

◆ **2022년 : 시범사업 등 제도 도입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검증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지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등)
- 지역사회 자립수요 파악 및 대상자 발굴 (시설장애인 등 사업 안내, 자립욕구 파악 등)
- 중앙, 지자체의 주거 · 고용 · 복지서비스 등 자원 연계(국토부(LH)와 주택 등 공급 체계 마련 등)
- 사업 효과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연차별)

◆ **2023~2024년 : 시범사업 본격 추진기**

- 사업추진과정 평가,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범사업 고도화
- 대상자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모형 적용 · 검증

◆ **2025년 : 본사업 준비기**

- 시범사업 결과 평가,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차별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화 가능한 자립 지원모형 확립 및 확산

4

3) 시범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주택 공급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 (LH) 입주조건 협의 및 편의시설 등 공간 개선

시범사업 운영

• (지자체)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주택 확보, 복지서비스 연계
•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통한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택관리 및 대상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지원 등

5

4)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 **추진근거 :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사업내용 :** 대상자 발굴하여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등 서비스 통합지원과 연계

▣ **사업기간/예산 : '22~'25년(4년간 총 600명 자립 지원 목표)**

('22) 22억원 → ('23) 48억원 → ('24) 60억원 → ('25) 54.5억원 (국비 기준 / 국비:지방비 5:5)

▣ **시범사업 운영 절차**

지원체계 조성	⇒	대상자 발굴	⇒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지원	⇒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 지정 전담인력 배치		정보제공 자립조사 *1차 기초, 2차 심층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검토		공적서비스 연계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일자리 등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식생활, 외출 등) 재산관리, 건강관리 등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상황 점검 등 모니터링

4)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주요 현황

◆ **(참여지역) '22년 10개 지역 → '24년 30개 지역 (광역 7개, 기초 23개)**

◆ **(사업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장기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장애인과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 24년부터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 기능 강화

* 보호자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 총 292명** (시설 134명, 재가 106명, 학대피해쉼터 23명 등 / 발달장애인 223명 / 1월 현재)

* (순증) '22년 29명 → '23년 74명 → '24년 218명

◆ **(전용주택) 319호 확보 및 공급** (LH 매입임대주택 등)

◆ **(전담인력) 자립지원 전담인력 127명* 배치**

* 사회복지사 1급 44.7%, 2급 56.1%,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3.3%, 2급 0.8%

5) 주택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택 현황

319호(국토부(LH),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 '24.12월 기준)

지역	주택 현황			LH매입임대 현황
	총계	입주완료	공실	
전체	319	205	114	223

구분	합계	국토부 (LH본부, 지역본부)	지자체 (지방공사)	기타
합계	210호	188호	11호	11호
'22년	100호	89호	7호	4호(민간3, 청약1)
'23년	94호	88호	1호	5호(민간1, 청약4)
'24년	16호	11호	3호	2호(민간2)

5) 주택

보건복지부

◎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립한 대상자에게 공급 또는 연계한 임대주택은 총 319호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연계 223호)

-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40㎡의 경우))

- 자립대상자(1인가구 기준) 임차보증금 평균 6,790천원, 임대료 월 196천원(전용 평균 52㎡), 평균 거주인원은 1.18명

1)거주시설장애인 : 자립정착금(800만원~2,0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 및 초도물품 구입 등을 지원
2) 재가장애인 : 시범사업의 주거환경조성비(1인 600만원)로 임대보증금 및 초도물품 구입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

@@특화형매입임대 사업 개요

ㅇ (정의)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기획・조성・공급・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소유권자)이 지원 및 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특징)
①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②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③ 테마 지원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주택 매입

ㅇ (주요지원)
① 토지 및 건설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공정별로 **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조성부담 최소화**
② 입주자는 공공임대와 동일한 임대료(시세 50% 이하)를 납부하되,
③ 특색있는 주택 운영을 위해 **입주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

참고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 공급 및 운영 절차

보건복지부

구분	세부 추진사항	추진기관
주택공급 요청	• 시범사업 참여지역 선정 • 선정 지역 통보 및 주택 공급 협조 공문 요청(복지부→국토부)	• 복지부(개발원)
▼		
주택 후보군 제공	• 주택 후보군(대상자 2~3배수) 제공(국토부, LH)	• 국토부(LH)
▼		
현장실사	• 주택후보군 현장실사 * 장애편의시설, 수행기관 접근성 등 점검	• 지자체(수행기관) • LH
▼		
사용 가능한 주택 선정	• 사용 가능한 주택 현황 회신 (지자체→복지부) • 최종 협의 요청(복지부→국토부)	• 복지부 • 국토부 • 지자체
▼		
공급 가능한 지원주택 확정	• 공급 가능한 지원주택 확정 및 통보 (복지부↔지자체)	• 복지부 • 지자체
▼		
LH-수행기관 임대차 계약	• 선정된 수행기관(주택운영기관)LH 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택 인수인계	• LH • 수행기관(주택운영기관)
▼		
LH-지자체-수행기관 업무협약	• 입주자(시범사업 대상자) 정보, 주거서비스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공실료 등 시범사업 관련 협약 사항 규정	• LH • 수행기관(주택운영기관) • 지자체
▼		
전대차 계약, 대상자 입주 및 주택관리	• 전대차 계약(주택운영기관-입주대상자) • 입주자 지원* 및 주택 관리 * 入입주 및 퇴거 관리, 入임대료, 공과금 납부 관리, 入주거환경개선 등	• 수행기관(주택운영기관) • 입주장애인
▼		
모니터링 및 평가	• 운영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복지부(개발원)

□ 시범사업 주택 사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사례)

○ **위치** : ㅇㅇ도 ㅇㅇ시

○ **호수** : 고령자 주택 27호(매입임대, 지상 2~5층, 전용 41㎡)

○ **커뮤니티시설** : 1호(지상 2층, 41㎡)

○ **입주자** : 시범사업 대상 19명 장애인 거주(청년 등 비장애인 혼합 입주)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40~250만원, 임대료 월 10~11만원

임대보증금은 자립정착금 활용, 임대료는 주거급여 활용

○ **편의시설** : 장애인주차장, 승강기, 출입구 현관문 및 화장실 폭(90cm) 등

○ **주거생활서비스** : 주택관리(임대료,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 소규모수선 등), 건강관리(건강주치의, 지역병원 협약 등),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수행기관)**

* 스프링클러, 방염벽지(커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홈케어(IOT) 설치, 소방서 및 경찰서 연계

보건복지부

주택 출입구	현관, 주방 (안전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화장실 (안전바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절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호출, 게이트웨이(소방서연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등))	**홈케어(IOT)** (활동량, 수면시간, 미감지 기능등)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병원 동행 등)
		

구분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유형별 대상		· 지역사회 거주하며 금전관리 및 자기옹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일자리, 낮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주거전환, 의료 및 도전적 행동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 준비	주거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시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립 정착금	· (지자체별 자체) 자립정착금 지원 * 전국 광역시도별 5백~15백만원 규모로 자체 지원 중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		
주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자립지원 인력	· 지원유형별 배치(자립유지형 6인~8인, 자립지원형 3인~5인, 집중지원형 2인) · 사례관리 및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48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100시간 내외)		
		추가지원 없음	· 시범사업 추가 지원 (+월 20~40시간)	· 시범사업 추가지원 (+월 200시간 이하)
	일자리 참여	· 중증장애인 등록상담가 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본인희망시)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방문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의료지원비 1명당 40만원 · 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 시 보조기기 구매 지원 1명당 300만원		
	발달 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 및 신탁서비스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지역주민활동 등 민간사업 등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안전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사업 연계		

□주거생활활서비스 예시

보건복지부

서비스 분류	상세 분류	서비스 내용
주거	주택계약	· 주택계약,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임대차계약 갱신
	입주지원	· 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가스/인터넷연결, 전입신고, 공적서비스 신청
	주택관리	· 편의시설 설치, 화재보험, 주택 유지보수,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 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보장구 관리
	가사활동지원	· 식사관리, 가사유지관리, 의복관리
	금전관리지원	· 수입 지출 관리 지원, 통장·도장·카드 보관 지원
	의사소통지원	· 의사소통방식 확인, 의사확인이 어려운 이용자 소통지원
	개인안전 관리	· 안전한 환경구성, 안전관련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안전을 위한 점검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 입주 전 확인사항,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사회참여	낮 활동 지원	· 복지시설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 종교 활동, 여가 활동
	관계지원	· 자조모임, 가족관계 지원, 친구관계 지원
	직업 활동	· 취업 상담 알선, 공공 일자리, 직업 유지
건강의료	건강관리	· 식단관리, 전염병 예방, 운동관리, 수면관리, 약물 관리
	의료기관 이용	· 이용 정기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의료지원	· 응급상황 대응, 치료, 입원
옹호	위기대응지원	· 인권침해사건 대응, 사회서비스 이용..사고 대응, 금융사고 대응, 법률 및 구제지원
	의사결정지원	· 성년후견제도 및 신탁 연계, 권익옹호기관 이용, 공공후견인 지원

6) 서비스 연계 현황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유형별 현황

- **(장애유형) 발달 138명, 지체 16명, 뇌병변 12명, 시각 4명, 정신장애 1명**
- **(자립 전 생활환경) 시설 131명, 재가 40명**
- **(지원유형) 자립지원형 190명, 집중지원형 58명 (6명 검토 중)**
  - (자립지원형) 일자리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 (집중지원형) 일자리 참여는 어려우나, 바깥 활동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현황

- **(일자리) 123명** (발달 112명, 시각 3명, 뇌병변 7명, 지체 1명)
  - 장애인일자리 61명, 직업재활시설 37명, 민간 19명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51명** (그 외 후견인 지원, 보호자, 본인 및 수행기관 지원)
- **(건강관리지원) 231명**
  - 병원 161명, 건강주치의 51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12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7명
-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179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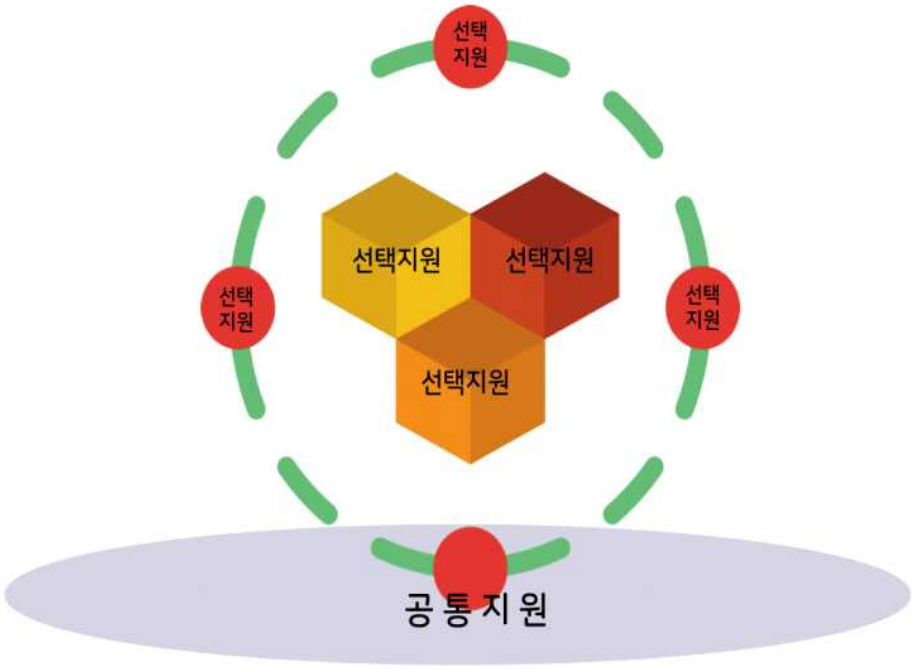
구분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자원 연계
공통지원	• 주거 마련(공공임대, 지원주택, 본인 및 가족의 개인 확보 등) • 주거환경 구축 및 개선(편의시설, 입주(이사), 물품구입 등 • 일상생활 지원 연계(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 공공부조 신청(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연금 및 수당 등) • 감면할인 신청(에너지,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 복지지원 및 바우처 신청(문화누리, 장애인스포츠 강좌, 평생학습바우처 등) • 일반고용, 지원고용, 직업재활시설 등 지원(민간회사, 복지일자리, 고용복지+센터,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상담 및 평가와 훈련 등) • 낮활동 서비스 신청 및 연계(주간활동,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평생교육센터 , 통합돌봄 등) • 정보통신서비스 신청(인터넷 등 통신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1,000~1,500만원:지자체별 상이) • 식생활지원(양곡할인, 푸드뱅크, 반차배달 서비스 등) • 일상적 건강지원(지역 민간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장애인주치의,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안전 지원(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소방시설, 스마트홈케어, 실종예방지문등록 등)

구분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자원 연계
선택지원	일상생활	• 주거 유지 관리 • 일상 및 서비스 신청-종결 등 행정지원 • 정서적 돌봄 및 웰빙 지원 • 직장생활 유지 및 퇴사, 이직 등 지원
	체험	• 자립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 자립지원 시범사업 체험과정 참여
	의사결정	• 일상적 대화 및 상담 지원 • 금전 지출, 취업, 서비스 이용 등 주요 의사결정 지원 •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 서비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 등
	옹호	• 수행기관 위해상황 및 학대 범죄 예방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옹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 •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화재, 상해 등 보험 가입

구분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자원 연계
선택지원	지역/활동	• 지역의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장애인복지관/종복포함, 장애인자립생활세터, 평생학습관 등) • 지역자원 이용(행정복지센터, 은행, 부동산,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 등) • 지역의 일상 활동 지원(마트, 편의점, 동네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노래방 등) • 여가 문화생활 지원(공원산책, 볼링, 탁구 등 정기적 여가지원, 여행, 지역축제 참여, 영화, 영화/연극 등 공연 관람 등) • 종교생활 연계 • 이동 지원 신청 연계(출퇴근교통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서비스 등)
	관계	• 지원영역 및 자립이전-이후 형성한 대인관계 상황에 따라 형성, 유지, 이별 등 지원 • 지역 중심의 일상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 지원 • 자조모임, 동료상담 등 정서적 지지관계 지원
	개인	• 독립된 시간과 공간 활용 • 생일, 명절, 종교생활 등 의례(ritual) 활동

7) 주거생활서비스

보건복지부



8)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25. 3.18)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9.]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제정]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25.2.27 보도자료)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①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②**과 지자체**에 **통합지원센터**③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년~)
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9)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25.3.18. 공포, '27.3.19. 시행)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22~'26)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전달체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례 및 유사사업 분석을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지자체-수행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현황분석을 통해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원유형의 서비스 적정성 제고

◈ **(지역 확대)** 미참여 광역지역(울산, 대전, 세종, 충북) 중심 '26년 시범사업 참여 독려

* '25년 현재 32개 지자체 참여(광역 7개, 기초 25개)

◈ **(하위법령)** 초안 마련('25년 중)→장애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26년 상반기)→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26년 하반기)→시행('27년 3월)

* (초안)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조례 마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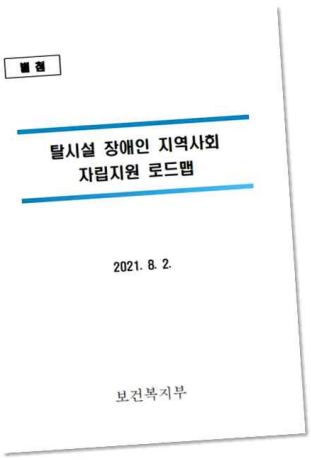
[발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과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제언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과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제언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시범사업의 근거인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UN의 최종견해


별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1. 8. 2.

보건복지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22)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부족**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22)

- 42(b)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개입에 따른 거주시설 변화 추이

연도	연말 누적인원				연평균 증감인원		
	거주시설 (전문서비스)	공동형 주거	개별형 주거	계	거주시설 (전문서비스)	공동형 주거	개별형 주거
2025	20,120	5,436	394	25,949	-	-	-
2030	13,384	7,393	2,159	22,936	-1,347	391	353
2035	7,714	8,986	3,626	20,327	-1,134	319	293
2040	3,025	10,287	4,847	18,159	-938	260	244
2041	2,193	10,517	5,065	17,775	-832	230	218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1,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2만 8,500명중2041년까지 매년 750명씩 지역사회로 이전한다는 계획

→ 실제 **개별형주거지원 대상은 5,065명으로 전체 대비 18.9%만 해당.**

- 공동형주거지원은 10,517명, 전문서비스를 명분으로 한 요양시설은 2,193명을 수용한다는 계획

→ **결국 정책대상의 80%는 시설 유형만 바뀔 뿐 시설의 삶이 유지되는 형태**.

- 정신장애인의 경우 원천 배제, 탈시설 이후의 지원내용 강화 필요.

→ **서비스 필요도가 낮은 사람들만 해당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 및 보완 필요**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제 기준 반영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필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제 인권기준 충실히 반영

장애인의 법적,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명시**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두터운 지원체계 보장

정부의「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및
지자체의 기존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현존 지원 정책 외에도
지원제도 보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2025~2030) 수립
- 탈시설 용어 및 탈시설 권리 명시
- 탈시설 정책 대상자를 전체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 정도, 의사소통 여부를 이유로 한 탈시설 대상 선별 조치 폐지
- 지원주택/돌봄주거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240시간으로 확대
-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기능보강 투자 금지
- 신규입소 금지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인권침해&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긴급탈시설 방안 수립
- 광역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 자립정착금 가이드라인 제시
-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 장애인 주택 정책 확대
- 주거지원 대상자 보건의료 연계 방안 수립

●계획 수립 과정에 탈시설 당사자 참여 보장

‘탈시설하고 싶다’는 시설장애인 즉각 지원 필요

자립하고 싶다 1,937명
경제적 지원 **34.8%**
일상생활 지원 **26.1%**
살 집 **18.9%**
일자리 **10.3%**

자립하고 싶지 않다 3,424명
방법을 몰라서 **21.9%**
자신 없어서 **14.7%**
가족들이 원해서 **9.7%**

당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1,937명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부재
→ 시설거주장애인들에게 반복되는 욕구조사는 ‘희망고문’

지역별로 탈시설 속도 편차
→ 서울, 대구, 부산 지역 등이 신체·발달장애 중복 장애인이 탈시설 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야 신체장애인 탈시설 본격적 시작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을 포괄하는 설계 필요

- 자립지원형(월 40시간), 집중지원형(월 200시간)의 대상 지원 비율 3:1로 제한
- 일평균 활동지원시간이 4시간에 그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부재
- 전담인력 배치 수준이 낮은 문제

유형	전담인력
자립유지형	대상자 6명~8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자립지원형	대상자 3명~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집중지원형	대상자 2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 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 대상시설 유형을 제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 타 지역 이동 불가
- 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 거주장애인 지원대책 부재





장애인을 차별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절차로 바뀌어야



(정보없음, 주변인 반대, 두려움, 지원제도 불확실 등등)

- 이미 장애인의 자립 절차는 옥상옥. 당사자의 의사결정 비존중.
- 자립 가능성을 평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평가는, 적합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보장을 강조.
- 탈시설가이드라인, 새로운 욕구평가도구가 의료기준에 의존해선 안 되며, 의료 전문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보다 더 우월하거나 높은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됨을 명시

장애인 탈시설에서 시설입소 예방까지

- **탈시설 시범사업 명칭 변경**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재가장애인 자립지원모형 추가 (2024.8)**
  → 서울의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 정부 차원의 **시설입소 예방 정책 확대**

구분	주거 전환 및 유지 지원형(기존 모형)	주거 유지 지원형(신설 모형)
대상	•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 재가장애인
주택	• LH 매입임대주택 등 제공 • 민간임대주택 등 활용	• 자택 활용
주택 보증금	•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지방비)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자택 활용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주택보증금을 지원(최대 6백만원)하여 민간임대주택 등 입주 지원(시범사업 예산) • 개별 사안별 복지부 협의 필요(별첨양식 有) • '24년 시범사업 지침 63쪽 참고	• 불필요
임대료 등	• 본인 부담(주거급여 등 활용)	• 좌동
수행기관	• 기존 시범사업 수행기관	• 별도 수행기관 선정(필요시)
지원인력	• (전담인력) 장애인 4명당 1명 배치(예산 기준) • 실제 2:1 수준 • (활동지원) 장애 정도에 따라 40-200시간	• 좌동
지원유형	• (자립지원형) 일자리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로 활동지원 추가지원 최대 40시간 • (집중지원형) 일자리 참여는 어려우나,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로 활동지원 추가지원 최대 200시간	• 좌동

시설 입소 대기자와 시범사업의 유기적 연계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명단(서식 3)을 관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2024년부터는 지자체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시작
→ 각종 지원제도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입소를 권장하는 상황



지향이 명확한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합니다!

- 2025.2.2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근거로 '자립지원법' 제정
- 그러나, 국가 차원의 구체적 탈시설 이행 계획 및 모니터링, 시설의 단계적 전환, 긴급 탈시설 지원 체계 등은 제도화 되지 못함
- UN 탈시설가이드라인(2022), "시설은 하나의 선택지로 인정해선 안돼"
- 집단 수용 중심의 시설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해야
- 자립지원법 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구분	자립지원법	탈시설지원법
법안 명칭	'자립' 중심	'탈시설' 명확히 지향
철학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시설 집단 수용 문제 해결
정책 지향	서비스 지원	집단 수용 시설 단계적 조치 *서비스 지원은 자립지원법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의 탈시설을 지원한 부모: 정식X주희의 이야기



"나는 1년만 더 빨리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옛날부터 봐왔던 엄마들도 만나면 내가 그러거든. "나 여기 온 거 너무 잘했어. 잘왔어"

"저는 남의 시선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 엄청 힘들었어. 근데 떼어 놓고 보니까 내가 애를 함부로 대했던 게 후회가 돼.

"옛날에 송전원은 산이었잖아. 인강원도 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는 번화가야. 우리집에서도 한 번에 차 타고 오잖아. 그래서 누가 우리 주희 어딨냐고 물어보면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해.
"대학로에 있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